

원불교 교립 중등학교 “종교” 교과서 개발의 현황과 과제

김 귀 성

원광대학교

〈요 약〉

이 논문은 중등학교 종교교과서 개발의 제반 제도적 환경과 원불교에서 개발한 종교교과서에 나타난 과제 및 종교교과서 개발의 방향 또는 미래 전망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기 개발된 교과서의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교과서 개발의 제반 제도적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과제가 있다. 교과서 개발과 관련된 제도적인 환경변화(예: 교육과정, 학생인권조례, 교과서 정책 등)는 교과서 개발에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최근 몇 년간 인정도서로 개발된 종교 교과서는 불교, 개신교 2종, 통일교 등 불과 수종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교과서 개발과 관련된 제 환경조건을 고려한 새로운 교과서 개발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셋째, 원불교에서 개발된 종교 교과서는 대부분 지난 7차교육과정기에 개발된 중학교 교재와 2000년 개발된 고교 종교 교과서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교육과정 및 제반 교육여건의 변화에 걸맞은 전면적인 새로운 교과서 개발이 요구된다. 끝으로 종교교과서 개발의 방향 또는 미래 전망을 조심스럽게 제기해 본다면, 하나는 인정도서로써 종교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절차모형과 아울러 개별종교와 관련되지 않은 공유부분을 위한 공동체의 참여가 요구된다. 둘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집필과정을 비롯한 교과서 개발과정에 현장교사의 참여와 학교 현장의 요구분석 피드백, 행·재정적 지원체계 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

핵심 주제어: 원불교, 종교교육, 교과서 개발, 종교교육과정, 인정도서

I. 서론

공교육에서 활용되는 교재인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학생 및 교사용 도서를 말한다. 현재 중등학교에서 활용되는 교과서에 종교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비단 “종교”와 외에도 “역사”, “사회과” 등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다. 적어도 이들이 한국 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의 한 단면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중에 교양교과인 “종교”과의 교과서가 관련 제도에 근거하여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과정 운영에 얼마나 활용되는지는 의문이다. 그런 배경을 들여다보면 교과서 개발 절차과정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종교교육 전반의 문제가 투사된 결과로 비쳐진다. 예컨대, 학교교육 현장, 종교교육에 대한 시각, 교육과정 및 운영, 교사, 등등의 문제를 간과하고서 교과서 문제만 미시적으로 보는데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최근 정부는 새로운 중등학교 교육과정(제2011-361호, 2011.08.09)을 고시했다. 이 교육과정에 의하면 2009년 교육과정에서 “생활과 종교”가 “종교학”으로 바뀌었다. 외견상 교양과목으로써 종교과목은 종교→생활과 종교→종교학으로 바뀐 셈이다. 이렇게 바뀐 배경에는 교양과목으로서 성격을 명료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종교학이라고 과목 명칭을 변경하면서 교과목표 설정의 배경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종교학은 교양교과의 일반선택과목으로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통해 일반적인 교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목이다. -우리사회에서도 종교로 인한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교의 유무와 종교에 대한 호감과 반감의 차이를 넘어서 서로를 인정하는 포용적 태도가 필요하다. 종교학 교과는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교양교과로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전인적 인간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¹⁾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과 더불어 중등학교 교과서 정책도 커다란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이미 지난 제7차 교육과정기부터 인정도서의 개발 절차과정의 변화가 있었고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184종을 인정도서로 전환하는 내용을 반영한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고시(제2010-21호)를 발표했다.²⁾ 이에 의하면 국정교과서(39%), 검정교과서(16.3%), 인정교과서(44.7%)의 비율로 각각 조정함으로써 인정도서의 비율을 높였다. 인정도서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에 비해 개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시중의 일반서적을 확대 활용할 수 있다는 유연성이 강점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인정도서의 심의를 자율적으로 해당 학교에 위임하는 형식으

1)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양 교과교육과정 5. 종교학』 고시 제2011-361 (별책 19)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11), 89쪽.

2)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 (2010, 01.12) 참조.

로 진행되는 변화는 교과서 개발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는 단언하기 어려우나 그동안의 형태를 감안한다면 결코 도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국종교교육학회에서는 지난 2006년 전반기에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방향(종교교재의 분석과 평가)을 통하여 이 주제를 다룬 적이 있다. 물론 이 때 종립학교는 모든 종립학교를 망라하므로 초·중등학교에서부터 고등교육기관에 이르기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중등학교에 제한을 두기로 한다. 그런 배경은 종립학교 교재개발에서 사실 중등학교가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에도 파급력의 중핵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과 중등학교 교과서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몇 가지 검토를 요구한다. 첫째, 종교교과서 개발의 제반 제도적 환경은 어떠한가? 둘째, 그동안 인정도서로 개발된 종교교과서에 나타난 과제는 무엇인가? 셋째, 종교교과서 개발의 방향 또는 미래 전망을 조심스럽게 제기해보는 일이다. 이 논문에서는 원불교 중등학교 종교교과서 현황과 과제를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교과서 개발 및 연구 성과를 분석, 검토하고 과제와 아울러 발전적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종교 교과서 개발의 환경 변화

교과서 개발의 제도적 환경조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무엇보다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과서 개발 관련 제도 법규(“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종교교육 관련 조례(학생인권조례) 등의 제도적인 변화를 들 수 있다.

첫째,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 신규 교육과정 간에 교육과정과 관련된 변화는 명칭변경 외에 커다란 변화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최근(2011.08. 09) 정부는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 개정 내용을 고시했다(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19). 이는 지난 2007년 고시된 교육과정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표 1〉 교육과정의 변동과 종교교육

구 분	2007년도 교육과정	2011년도 교육과정
교과목 명칭	생활과 종교	종교학
목표	1)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고, 2)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인생문제를 성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배양하며 3)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르게 참된 삶의 태도를 기른다.	1)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한다. 2)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인생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배양한다. 3)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올바르게 참된 삶의 태도를 기른다. (세부목표 6항목 추가)

내용	(1) 인간과 종교 (2) 종교현상의 이해 (3)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 (4)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5) 세계의 종교와 문화 (6) 한국의 종교와 문화 (7) 종교 공동체의 이해 (8) 특정 종교의 사상과 전통	(1) 인간과 종교 (2) 종교현상의 이해 (3)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 (4) 종교적 인간관, 사회관, 자연관 (5) 세계의 종교와 문화 (6) 한국의 종교와 문화 (7) 개별 종교 등의 이해
교수 - 학습 방법	가. 교과서에 제시한 주제와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전개하되 종교와 관련된 일상생활의 경험을 중시한다. 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종교의 가치와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를 명확히 하고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려는 자세를 갖게 한다. 다. 학생들의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발표하되,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서로 자제하여 화합을 깨뜨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라. 다양한 종교적 상황을 인식하여 성급한 단정이나 결론을 내지 않도록 유의하며 종교에 관한 견해 차이를 포용하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마. 종교에 관한 다양한 영상물을 끌고루 활용하도록 하고 토론 학습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유도한다. 바. 수업하기 전에 끝맺는 말과 수시평가 내용 및 과제를 부과 계획을 수립하여 수업과 평가를 연계시킨다.	좌와 동일함
평가	가. 객관식 위주의 평가방식을 지양하고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논술식을 활용하며,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태도를 평가한다. 나. 학생에 대한 관찰과 면접, 논술과 독후감 등의 과제를 검사 같은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고 학생들의 수업참여 의지를 평가한다. 다. 지필 검사 이외에도 종교 관련 자료나 사례의 수집과 분석, 논증에 대한 비판과 토론 발표 능력을 고루 평가하도록 한다. 라. 감성, 지적으로, 의지를 함께 기를 수 있도록 수업에 대한 느낌, 종교 문제의 원인 파악과 대안 제시, 바람직한 종교관과 인생관에 대한 결심 등 정의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좌와 동일

물론 교양과목인 “종교학” 교과의 이수에 있어서는 2009년도 개정된 교육과정부터 고1, 2, 3 교양과목으로 종교학 과목도 일반선택과목에 포함되어 최소 4단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과목 선택 시에는 복수과목의 개설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로 교육과정 운영은 결코 쉽지 않은 편이다. 조심스럽게 종전의 “생활과 종교”에 비해 “종교학”으로 교양과목 명칭변경의 의미를 찾아본다면 이제 종교 과목의 교육과정을 지배하는 모 학문을 종교학에 둔다는 것이다. 이는 적어도 신앙적 종교교육까지도 종교학적 범주 내에 둘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질 수 있다. 해묵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종교학적 종교교육과 신앙적 종교교육간의 간극은 일정 부분 해소될 여지를 열어 준 셈이다.

둘째, 교과서 개발 현황 및 인정도서 개발 관련 제도의 변화이다.

지난 2006~2011까지 종교 교과의 인정도서 개발현황을 보면 개신교, 불교, 통일교의 교재개발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2〉 참조). 특히 통일교의 생활과 종교는 지난 2009년도 개정된 새로운 교육과정에 발맞춰 개발한 것으로 이해된다.

〈표 2〉 전국시도 교육감 인정도서 목록 (2006~2011)

지역	교 재 명	적용 대상	구분	인정번호	인정연월일	심의 여부	형태	쪽수	지은이	출판사	가 격
서울	중학교 종교 (기독교)상	중1	교과서	2006-061	2006. 02.02	심의 있는	4*6	164	이원설	생명의 말씀사	3,200
	중학교 종교 (기독교)중	중2	"	-062	"	"	"	172	"	"	3,100
	중학교 종교 (기독교)	중3	"	-063	"	"	"	156	"	"	3,100
	중학교 종교 (기독교) (상)	중1	"	-064	"	"	"	132	김치성	장로교출판사	2,700
	중학교 종교 (기독교) (중)	중2	"	-065	"	"	"	136	"	"	"
	중학교 종교 (기독교) (하)	중3	"	-066	"	"	"	118	"	"	"
	중학교 종교 (불교)	중, 전	"	2009-016	2009. 01.22	"	"	298	김무생	도서출판 해오름	5,860
	고등학교 종교 (기독교) (상)	고1	"	2006-075	2006. 02.02	"	"	124	김치성	장로교출판사	2,700
	고등학교 종교 (기독교) (중)	고2	"	-076	"	"	"	136	"	"	"
	고등학교 종교 (기독교) (하)	고3	"	-077	"	"	"	116	"	"	2,650
	고등학교 종교 (기독교)상	고1	"	-078	"	"	"	156	이원설	생명의 말씀사	3,000

	고등학교 종교 (기독교)중	고2	"	-079	"	"	"	"			"
	고등학교 종교 (기독교)하	고3	"	-080	"	"	"	"			"
	생활과 종교	중1	"	2010-333	2010. 08,11	"	"	124	이재일	(주)성화 출판사	3,047
	생활과 종교	중2	"	-334	"	"	"	114	"	"	3,015
	생활과 종교	중3	"	-335	"	"	"	118	"	"	3,015
	생활과 종교	고, 전	"	-338	"	"	"	274	"	"	4,568

* <http://www.goe.go.kr> 참조

비단 이런 교육과정 개정 외에도 정부의 교과서 개발에 관한 정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10년 정부는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적어도 종교교과서 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논의가 요구된다. 1) 다매체 시대에 사용하기 편리한 e-교과서를 종이 교과서와 함께 보급하는 방안이다. 2) 인정도서의 대폭 확대로 인정절차만 거치면 시중 일반서적도 교과서로 사용 가능하게 된다. 종전 2007년 인정도서 전체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 정도였다면 2010년 이후 45%로 확대된다. 따라서 2011부터 총 184종의 도서가 인정도로 전환된다. 인정도서에 대한 최소한의 교과서로서 품질유지를 위해 2010년부터 인정도서 과목별로 공모를 통해 전문학술기관 등을 지정도서 감수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교과서 정책의 변화가 종교 교과서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보면 향후 e-book과 같은 다양한 매체 교과서의 개발과 인정도서 감수시 전문학회도 감수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해진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시행을 거쳐 확인되지 않은 터라 과연 이런 제도가 어떻게 정착될지 여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인정도서업무 매뉴얼”(2011.09.27)에 의하면 고교 교양과목의 도서개발계획(2011 시도별 심사 및 개발도서분담 계획)에 따라 지역별 안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대구(진로, 보건), 강원(환경과 녹색성장), 경북(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으로 분담하는 안이 발표되어 종교과목은 경북 도교육청에서 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밖에 인정도서 심사기준은 공통심사영역 및 기준(9개 항목)과 교과별 심사영역 및 기준(11개)³⁾은 종전과 같이 각각 제시되어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제도나 형식적인 절차과정 등은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역시 누가 개발하고 누가 인

3) 공통기준으로는 헌법정신과의 일치(7개 항목), 교육의 중립성 (1), 지적재산권의 존중 (1) 총 9개 항목이며, 교과영역의 심사기준 및 배점은 교육과정의 준수(2항목, 30점), 교육내용의 선정 및 조직(4항목, 40점),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5항목, 30점)으로 합 11항목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있다-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2010. 5.4 대통령령 22143호)에 근거하여 인정도서 심의규정, 협의회 등 하위 규정 제정함.

정하며 누가 활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하면 제도에 앞서 인정도서와 관련된 구성원의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종교교육의 환경변화이다.

지자체별로 학생인권조례안이 심의 중에 있거나 성안 중에 있다. 경기도는 이를 선포한 바 있고(2010.10.5) 전북은 입법예고된 바 있다. 그리고 이미 2010년 7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발족되어 불원간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론 그 하위 내용은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종교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 해당 학교는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종교과목 수업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둘, 종교교육을 할 때는 반드시 대체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셋,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배정에 있어서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학교로 입학하거나 전학하는 것을 기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등 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시안(15조 3-5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⁴⁾

- ③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 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 참신 등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조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종교적인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선택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 행사를 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
 8.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전2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위와 같은 학생인권조례 공포는 향후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인가 그 방향 설정에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될 조짐이다. 원천적으로 희망자에게만 종교행사나 종교과목 수업을 허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학의 건학이념이나 자주성과 학생의 종교자유간의 긴장으로 비쳐질 소지도 있다. 이런 종교교육을 둘러싼 외적 환

4) 한미라, 『공교육에서의 개신교 학교 종교교육의 회생』,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11춘계학술대회 (2011.5.28 호서대학교), 『발표논문자료집』, 17-18쪽.

경이 결국 교과서 개발을 비롯한 학내 종교교육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Ⅲ. 원불교 종교 교과서 개발의 현황과 과제

1. 교과서 개발의 현황

현재 원불교 산하 종립 중등학교에서 개발되어 사용 중인 종교 교과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 두 종류가 있다(〈표 3〉 참조).

〈표 3〉 원불교의 중등학교 교과서 개발 현황

교재명	저자	펴낸이	펴낸 곳	발행일	판형	쪽수	인정 기관
중학교 종교 (원불교)	고시용 박희중	원불교 교정원 교육부	원불교 출판사	2002.11.1	신국판	202	전북도 교육감 2002-002
고등학교 종교 (원불교)	나상호	"	"	2001. 3.1	국판	231	" 2000-001

이들 교과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의 준거를 적용한 사례는 다양하다. 예컨대 내용선정과 조직, 내용 진술, 편찬체계 등⁵⁾을 기준으로 한 경우, 목적과 목표 분석,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 교수-학습과정, 교과서 구성의 참고물이나 보조자료 기준,⁶⁾ 교육과정(단원 명칭과 세부항목, 교육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등)⁷⁾ 등이 그렇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과서로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은 관계법령이 될 것이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6841호, 2000.6.19)에 명시된 심의규정은 바로 그런 준거라고 할 수 있다. 동 규정 15조(인정기준)에 따라 정부가 인정도서 업무메뉴얼에 제시한 인정도서의 인정기준은 공통심사영역 및 기준과 교과심사영역 및 기준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⁸⁾ 이 기준은 교과서 심의의 판정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적어도 교과서가 담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과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5) 김용표, 『불교계 종립학교와 종교교재』, 『종교교육학연구』 22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148-153쪽.

6) 조은하, 『개신교 종립학교의 종교교과서 분석』, 『종교교육학연구』 22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195-202쪽.

7) 이재일, 『통일교 종립학교의 종교 교과서 분석과 평가』, 『종교교육학연구』 22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211-215쪽.

8) 인정도서 심사기준은 인정도서업무메뉴얼(2011.09.27 인정도서 개발 및 관련 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공통심사영역(3영역) 및 심사기준(9개 항목)과 교과심사영역(3영역) 및 심사기준(11개 항목) 총 6개 영역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경기도교육청·시도인정도서협의회, 『인정도서업무메뉴얼』, 75-76쪽).

그러나 여기서는 이들 내용 총 20개 항목 중 인정도서로써 종교 교과서 분석의 준거로 삼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하위 기준으로 19개 항목만을 적용하여 분석키로 한다. 그 자세한 하위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교과서 질적 평가의 기준 (안)

영역	내용	비고
1. 규정준수	1-1.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시행령,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지적 재산권 등의 준수	
2. 교육목표, 내용의 선정 및 조직	2-1. 교육의 중립성: 교육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고 정치, 파당, 개인적 편견 전차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교육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교과서 내용은 특정 종교, 인물, 인종, 상품, 기관을 선전하거나 비방해서는 아니 되며 남녀의 역할에 대한 편견이 없도록 해야 함). 2-2. 교육과정의 구현 및 목표 진술: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간상, 구성방침, 교육목표를 충실히 구현함(학습목표를 학습자 중심으로 진술). 2-3. 교육의 과정을 반영한 교육내용선정: 교과목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제시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내용을 선정한다. 2-4. 수준과 양의 적정화: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학습내용을 정선 수준과 양을 적정화함(단위 배당기준에 맞춘 학습내용 조직). 2-5. 교과 특성에 알맞은 내용 선정: 핵심적 지식, 기능, 태도와 주제, 제제, 소재 등을 교과 특성에 알맞게 선정함. 2-6. 창의성 발현 가능한 내용 구성: 참신한 소재를 활용하되, 창의성 발현 가능한 교수-학습활동 및 평가로 구성함. 2-7. 계열성 연계성: 과 하위목표와 내용, 교수학습활동과 방법을 학년단, 학기간 계열성과 교과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조직하되 지나친 학습내용중복, 내용전개상 논리적 비약이 없도록 유의함. 2-8. 단원의 적합성: 교수-학습과정을 고려하여 교과목의 특성과 단원 성격에 적합하게 창의적으로 구성함. 2-9. 학습자 자기 주도적 학습가능성 제고: 각 단원은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용어해설, 탐구과제, 선택 학습활동 등을 다양하게 포함시켜 구성함. 2-10. 학습자의 개인차 고려: 학생의 개인차 고려: 학생 개인차에 따라 효율적인 학습 가능하도록 조직함.	
3. 내용 진술의 정확성, 공정성	3-1. 주요개념은 보편화된 것으로 함. 3-2. 자료의 공신력: 삽화, 도표, 통계 인용자료 등 3-3. 표현 표기는 표준국어대사전 및 관련 법규에 따름. 3-4. 병기: 의사전달을 위해 부득이 한 경우 괄호 안에 외국문자, 한자병기가능. 3-5. 내용의 공정성, 타당성 제고:	
4. 외형체제	4-1. 외형체제: 판형, 지질, 색도, 학습동기유발, 흥미제고 4-2. 집필자 실명제: 단위별 집필자 실명 제시 4-3. 연계 도서와 연계: 연계 도서간 유기적으로 구성함.	

위의 기준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기준하여 종교과 도서 평가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엄선 제시해본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검토를 요구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미 개발된 교과서의 평가 준거로 잠정적으로나마 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원불교에서 개발한 중학교 종교(원불교) 교과서의 내용을 제시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교육과정 변화와 중학교 종교(원불교) 교과서 내용 비교

2011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종교 (원불교)2002	비 고
인간과 종교	인간과 종교	인간과 종교 (종교적 인간 , 종교의 이해, 종교의 구성, 종교의 미래)	22쪽
종교 현상의 이해 (종교 공동체의 이해)	종교경험의 이해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세계의 종교와 문화	세계 종교와 문화	세계종교의 이해 (유교, 불교, 도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36쪽
종교적 인간관 , 사회관, 자연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다양한 인간관, 종교적 인간관 , 종교적 자연관, 과학과 종교)		
한국의 종교와 문화	한국 종교와 문화	한국종교의 이해 (한국무교,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천도교, 증산교, 대종교)	42쪽
	종교 공동체		
개별 종교들의 이해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	원불교의 역사와 현황 원불교의 가르침 원불교인의 종교생활 세계평화와 종교협력운동	97쪽

위의 교과서 개발 관련 평가준거, 교육과정 등에 비취 원불교에서 개발되어 활용중인 중등학교 종교 교과서를 분석한 바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구체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원불교에서 이미 개발된 교과서가 현행 교육관련 각종 법규에 크게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서 관련 법규는 헌법을 비롯하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각종 법규에 명시된 종교교육 관련 규정을 의미한다.

둘, 교육내용의 선정조직에서 교육과정과의 적합성은 부분적으로 검토를 요구받는다. 이미 개발된 종교 교과서의 편찬 기준은 당시 정부가 고시한 제7차 교육과정에 준하여 개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바에 의하면 “종교과목은

종교에 관한 기본지식과 보편적 이론을 이해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물음과 탐구를 통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할 수 있게 도와주려는 과목이다”. 종교과목의 기본목표는 ① 종교에 대한 폭 넓고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고 ②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인생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심을 확충하며 ③ 다른 종교를 포용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교인으로서 바람직한 생활태도를 기르는데 있다. 이런 교육과정의 기본성격과 목표에 비춰보면 원불교의 중등학교 종교교과서는 그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당시의 교육과정 내용에 비춰볼 때 개별종교의 기술이 과다하게 제시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최근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적합한 새로운 교과서 개발의 과제를 안고 있다.

셋, 교과목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제시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조직되었는가와 관련하여 고교 교과서는 “연구할 문제” 등을 제시한 반면, 중학교 교과서는 “이 단원의 공부를 위하여”, “더 알아보기”, 이해를 돕기 위한 “한눈에 쏙” 등이 제시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평가와 관련된 내용 선정은 제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종교교육의 과정을 지배하는 하위 요인을 충분히 고려한 교과서 개발의 과제는 향후 교과서 개발의 남겨둔다.

넷, 수준과 양의 적정화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발달 수준, 현장에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 제반 여건에 적합한 교과서의 질과 양으로 개발될 과제를 안고 있다.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학습내용을 정선함으로써 그 수준과 양을 적정화하고 있는가?(단위 배당기준에 맞춘 학습내용 조직). 특정 종교에 대한 진술 부분이 전체의 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조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 예컨대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총 7장의 내용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내용 진술이 4장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분량에서도 전체 202쪽 가운데 106쪽(전체의 48%)을 점유하기 때문이다. 고교 교과서에서도 대동소이 하여 분량의 적정화는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비록 교육과정의 준거에는 충실할지라도 대부분 이론에 치우친 결과 본의 아니게 실재를 도외시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다. 이 점에서는 대부분의 종교 교과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로 여겨진다.

다섯, 학습자의 발달 및 자기 주도적 학습의 고려(참신한 소재를 활용하되, 창의성 발현 가능한 교수-학습활동 및 평가로 구성되었는가? 소재의 발굴이 학습자의 눈높이를 얼마나 맞출 수 있는가의 문제와 창의적 학습활동이 가능하도록 선정 조직되어 있는가? 등) 부분에서는 검토의 여지를 남긴다. 다만,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더 알아보기”, “한눈에 쏙” 등의 내용을 담은 점, 용어해설, 탐구과제, “선택 학습활동” 등을 다양하게 포함시켜 구성한 점과 중학교 교과서는 학습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삽화, 그림, 다양한 예시 등)이 주목할 만하다.

여섯, 교과내용의 계열성과 연계성(하위목표와 내용, 교수학습활동과 방법을 학년간, 학기간 계열성과 교과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조직하되 지나친 학습내용중복, 내용전개상

논리적 비약이 없도록 유의했는가? 등)면에서는 종교 교과서 모두 교육과정에서 명시된 교과내용의 계열성과 연계성을 준수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과정 자체가 갖는 계열성과 연계성의 문제는 교과서 개발에 앞서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일곱째, 내용 진술의 정확성,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직접 해당 종교외의 교과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해 집필진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경향은 다른 종단의 교과서에서도 공히 확인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적어도 개별 종교의 기술 내용을 제외한 부분에서나마 공동 집필진을 구성하여 집필 감수에 착수해볼 여지가 있다. 주지하듯 내용 진술의 정확도,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검인정 절차를 밟는다. 이런 검인정의 절차는 각 시도교육감에서 당해 학교로 위임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당시는 해당 시도교육감의 인정도서 절차를 충실히 따랐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발전된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는 별도의 감수기구를 확보하여 수정 보완을 요구받을 필요도 있다.

여덟째, 외형제제(판형, 지질, 색도, 학습동기유발, 흥미제고를 고려하여 교과서가 개발되었는가? 등)에서 중학교 교과서는 종전에 비해 신국판으로 새로 개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판형에다 색도, 지질, 학습의 흥미유발 등의 측면에서 가일층 진전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비해 고교 교과서는 이런 준거에 맞춰 시급히 개발될 필요가 있다. 다만, 집필자의 실명제 등은 충실히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개발된 교과서의 활용도에서는 검토의 여지를 남긴다. 아무리 좋은 교과서가 개발되었다 할지라도 학교 현장에 보급되어 활용되지 않는다면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교 교과서가 개발과 활용이 별개로 이뤄지고 있다. 왜 종교교과서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되지 못하는가? 그 이유로는 교사들의 만족도가 대두된다. 교과서 내용이 어렵고, 재미의 부재, 교과서 내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 교과서 구성이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⁹⁾ 그 밖에 탈 종파성 문제, 사용자에 대한 폭넓은 고려의 부재, 특히 비신자 학생들을 위한 고려가 거의 없다.¹⁰⁾ 원불교 중등학교 종교교과서에 대한 선행 분석과 평가에서도 이런 점들이 확인된다. 예를 들면 비록 교과서는 개발이 되어 있으나 종교교재로 활용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¹¹⁾고 지적한 점은 다른 종교의 학교 현장에서도 유사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개발된 종교교재가 현장에서는 실제로 잘 활용되지 않는가? 원불교 중립학교 현장교사와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이 “새로운 교과서 개발이 시급하다.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는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교재개발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반응이

9) 성현, 『한국가톨릭 고교 종교 교과용 도서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0), 53쪽.

10) 김종서, 『현대 한국 고교의 종교 교과서 연구』, 『종교학연구』 26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2007), 51쪽.

11) 고시용, 『원불교 중립학교의 종교교재의 분석과 평가』, 『종교교육학연구』 22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237-238쪽.

다. 한편 이런 교과서 활용도가 낮은 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실제 수업활동에 우선 파워포인트, 영상 등이나 교과서 내용의 재구성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요컨대 개발된 종교 교과서와 학교 현장과의 거리감이 남아 있음을 확인케 해준다.

IV. 논의 및 시사점

첫째, 종교교과서 개발의 과제로는 개발과 관련된 환경 변인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다. 이를테면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교과서 개발, 검인정 절차, 학교 현장 등이 교과서 개발 전 과정과 일정한 호흡을 맞출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은 교과서 개발의 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 실제 교과 교육 운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 어느 것 못지않게 크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정 시에는 교과의 특성이나 정부의 의지도 고려해야 하지만 현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 인정도서에 관한 제도적 변화는 이제 e-book과 같은 새로운 타입의 교과서 개발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교재개발이 활용도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종교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공정성과 객관도 유지의 문제이다. 교육과정에 준한 교과서를 개발한다 할지라도 개별종교와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관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내용이 진술될 필요가 있다. 만일 현재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면 자의적 해석이나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에서 활용도 제고에도 제약이 따른다. 그런 점에서 공유될 부분에 대한 교과서 개발 위원을 구성 공동집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직하다. 그 개발위원회에는 교과 전문가, 교사, 교육과정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부합되고 학습동기유발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적어도 종교일반에 대한 기술은 특정 종교의 입장에서 접근보다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다 정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교과서 활용도의 문제이다. 아무리 좋은 교과서 개발이 이뤄져도 사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종파적 내용은 대폭 축소하고 보편적 교육적 내용이 확대되어 할 것이다. 보편적 교육내용이 인간의 내적 존재변화를 추구하는 종교교육 내용으로 보완된다면 종교 교과서의 진정한 독특성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¹²⁾ 대부분의 종교 교과서는 개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않는 이유에는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재미가 없거나, 어렵거나 구성이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현실 반영도가 떨어지는 등의 원인이 있다.¹³⁾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험학교에서 적절한 과정을 거쳐 과

12) 김종서, 앞의 논문, 52쪽.

13) 성현, 앞의 논문, 39쪽.

연 교과서가 유의미한지를 면밀하게 관찰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 더 나아가 종교교육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교과서 개발의 절차모형 제시이다. 인정도서 개발에 관한 절차과정은 해당 학교 또는 종단에 위임된 사항이지만,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절차과정이 요구된다. 그런 일련의 절차과정을 예시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이 절차 모형은 교과서 개발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연구개발, 집필 편찬, 심의 평가와 제작공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담고 있다.

<표 5> 종교 교과서 개발의 절차 모형 (안)

단 계	기 본 사 항	세 부 사 항
1. 기획 ↓	- 개발계획 수립 - 요구 및 교육과정분석	- 교과서의 편찬 기본계획 설계 - 학생, 학부모, 교사, 국가, 사회의 요구분석, 교육과정 분석
2. 연구 개발 (R&D) ↓ ↑	- 문헌정보수집 분석 - 현장실태 분석 - 모형 개발 - 집필지침 작성 - 집필세부항목 작성	- 국내외 다양한 관련 교과서 수집 분석 - 교육과정, 수업실태, 교수-학습자료 등 실태분석 - 교과서 체제 모형개발 연구 - 교육과정에 기초한 세부 집필지침 작성 -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주요 내용의 상세화
3. 집필 편찬 ↓ ↑	- 집필진 선정 - 집필세목의 확정 - 집필기본방향 설정 - 편찬 체제 확정 - 단위별 집필 분담 - 단위별 원고 집필 - 집필진 협의회 - 원고 초안 - 삽화, 사진, 그림 등 구성 - 검토, 윤문 교열 - 심의본 완성	- 집필진 선정기준 및 구성 - 집필진 세목협의 수정 보완 - 도서편찬방향, 검정기준 - 편찬체제협의 결정 - 집필분담, 단계별 일정계획 수립 - 단위별 원고 집필 - 집필진 원고본 협의 및 수정보완 - 원고본 집필완료 - 단위별 삽화, 사진, 그림 제작 - 원고, 삽화, 사진, 그림 검토윤문 교열 - 심의본 협의 및 완성 확정
4. 심의 평가 및 제작 공급 ↓ ↑	- 심의평가기준 작성 - 심의평가진 구성 - 심의본 심의 및 평가 - 개고본 완성 - 현장검토 결과 반영 - 최종본 확정 - 교과서 제작의뢰 - 인쇄, 제본, 발행 공급	- 심의평가 기준의 확정 - 평가진 선정 기준 마련 및 심의진 구성 - 심의본 평가 및 결과통보 - 심의결과 반영 수정보완 - 실험학교 선정, 현장실험검토, 실험본 수정보완. 실험 실시 및 결과반영 - 최종 종합정리 작업, 최종본 확정 - 교과서 제작의뢰 - 인쇄, 제본, 발행 공급

V. 결 론

좋은 교과서가 개발되려면 무엇보다도 내용과 형식의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내용은 교과서의 특성에 적합한가? 교과서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과서의 성격, 목표, 학습방법,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지, 학생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지, 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데 적합한지, 학생으로부터 선택 가능한 교과서인지? 기 개발된 교과서의 활용도가 높은가? 등등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형식은 교과서의 외형 판형, 색도, 짜임새, 활자체, 등등의 외적 조건을 의미한다.

현재 종교 교과서는 인정 교과서로써 몇 가지 유형에 의해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다른 인정 도서와 같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개발된 다기 보다는 학교의 교육과정 신설에 따라 자체예산 기획과 그에 수반한 교과서 개발, 전문 출판사의 기획 출판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종교교과서는 아마도 후자의 사례가 지배적인 편이다. 이런 경우 교과서의 질 관리가 다른 교과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벗을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심의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질 관리 유지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상에서 종교 교과서 개발의 제반 조건과 아울러 원불교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교과서 개발의 제반 제도적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과제가 있다. 교과서 개발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비롯한 각종 정부의 정책 등의 변화는 교과서 개발과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

둘째, 최근 몇 년간 인정도서로 개발된 종교 교과서는 불교, 개신교 2종, 통일교 등 불과 수종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교과서 개발과 관련된 제 환경조건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교과서 개발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셋째, 원불교에서 개발된 종교교과 교과서는 대부분 지난 7차교육과정기에 개발된 중학교 교재와 2000년 개발된 고교 종교 교과서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교육과정 및 제반 교육여건의 변화에 걸맞은 전면적인 새로운 교과서 개발이 요구된다. 물론 기 개발된 교과서라 할지라도 평가의 준거에 비춰보면 후속 연구와 그 결과가 교과서 개발에 반영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끝으로 종교교과서 개발의 방향 또는 미래 전망을 조심스럽게 제기해보는 일이다.

(1) 좋은 종교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제작 공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망라하여 공유 부분과 자율 부분을 적절히 변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교과서를 개발하고 학교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장점 대신에 교과서 내용에 대립이나 갈등을 야기할 위험 요소도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개발 연구와 심의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요구된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각 종단 부분의 기술부분에 대한 양

적 조정의 문제, 공유부분에 대한 공통 기술 문제 등의 해결에서 공유된 교과서 개발의 노력이 기대된다.

(2) 교과서 활용도의 제고를 위해서는 제작 기획에서부터 집필진 구성, 감수, 인쇄, 보급 등 전 과정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교과서를 개발하는 단위 기관, 집필진, 심의, 출판사 등의 능력의 한계가 제기될 수 있다. 인정도서의 경우 더욱 그러할 개연성이 높다. 현장에 활용도의 제약을 받다보니 영세한 출판사에 개발 제작을 의뢰하게 된다. 따라서 교과서의 질이나 제반 조건이 부실할 위험도 없지 않다. 이 점이 교과서 개발의 현실적 제약이라면 점진적 개선의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개발된 교과서가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필과정에 현장교사의 참여와 학교 현장의 요구분석 피드백, 행·재정적 지원체계 등도 재고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시용, 「원불교 중립학교의 종교교재의 분석과 평가」, 『종교교육학연구』, 22, 서울: 한국 종교교육학회, 2006.
-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11.
- 교육인적자원부, 『한문 및 교양 선택과목 교육과정』,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7.
- 김귀성, 「종교 교재개발의 과제와 전망」, 『종교교육학연구』, 22,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 _____,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과서 개발」, 『종교연구』, 28, 서울: 한국종교학회, 2002.
- 김용표, 「불교계 중립학교와 종교교재」, 『종교교육학연구』, 22,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 김중서, 「현대 한국 고교의 종교 교과서 연구」, 『종교학연구』, 26, 서울대학교 종교학 연구회, 2007.
- 박귀선, 「제7차 고교교육과정과 종교 (기독교) 교과서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1.
- 박형서,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실과 교과서의 개발모형」, 『교과서연구』, 65, 서울: 한국 교과서연구재단, 2011.
- 성지은,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 고교 종교교과서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 성 현, 「한국가톨릭 고교 종교 교과용 도서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0.
- 안병호, 「기독교 고등학교 신앙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안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1.
- 용석범, 「기독교 학교에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종교교육의 새모델」,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1.
- 유필근, 「한국 기독교계 중등학교 종교교과서의 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5.
- 이재일, 「통일교 중립학교의 종교교과서 분석과 평가」, 『종교교육학연구』, 22,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 이종우, 「종교교과서에 나타난 도덕교육의 내용에 관한 연구」,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조은하, 「개신교 중립학교의 종교교과서 분석」, 『종교교육학연구』, 22,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 최영희, 「가톨릭 학교의 지침과 종교교재」, 『종교교육학연구』, 22,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 한정숙, 「토마스 그룹의 나뭇의 프락시스에 기초한 고등학교 종교 교과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 황차현, 「기독교 학교의 교재(종교교과서, 교육내용)에 관한 제언」, 장로회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1998.
- <http://www.sen.go.kr>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안)
- <http://www.jbe.go.kr>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안)

원고접수 : 2012년 1월 16일 1차 심사: 1월 25일 게재승인일: 2월 13일

연구자소개 : 김귀성

① 전공 : 교육철학 및 교육사/ 소속: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② 관심영역 : 종교교육, 동아시아비교교육, 한국교육철학, 지역교육(중국교육사)

③ 주요논저 : 『현대교육사상』, 『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이해』, 『생활이 바로 교육이다』,
『17세기조선에 소개된 서구교육』 등.

④ E-mail : gskim@wku.ac.kr

Abstract

Tasks and Present Status of Religious Textbook of Secondary Schools in *Won*-buddhism

Kim, Guisung

Wonkwang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how the current status and systematic environment of religious textbook provided, and finally acknowledge the tasks and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textbook for future in secondary schools established by Wonbuddhism.

For those, b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apers precedent and textbooks developed, I 'd like to pres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o far as follows.

First, there are some tasks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textbooks how to apply the systematic environment (eg: curriculum, Act of student right, policies of government on textbooks, etc) to the religious textbook development. Second, recently we can acknowledge the some cases of development of religious textbook, taken an examples, in Buddhism, Protestant, Unification Church etc. The other words, it means that in near future, it needs to develop the new textbooks, based upon changing environment of religious textbooks. Third, in Wonbuddhism, two kinds of religious textbooks were developed in 2002 for middle school students and 2000 for high school students. Finally, it is the time for me to suggest some ideas on the direction of religious textbook development in future. First, it need the some process model of textbook development, at least in shared part beyond the each religious orders, that is to say participation of community organized with various members (composed with academic association community, school teachers, parents representative etc). Second, in order to extend the use of religious textbook in Korean secondary schools, I'd like to recommend the participation of school teachers to the development of religious textbook, and also reflect the needs and feedback in school based ideas on that. Furthermore as possible, reconsider the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ose tasks.

Key words : Won-buddhism, Religious Education, Textbook development, Curriculum of Religious Education, Authorized Textbook